“고객들의 법원 이용 불편함 없도록”

농협은행 전주법원지점 개점식… 공탁금 보관 · 관리업무 수행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인 '전주법원지점' 개점식을 개최했다.

15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날 개점식에는 전주지방법원 오재성 법원장, NH농협은행 권준학 은행장, 부안농협 김원철 조합장, 농협중앙회 정재호 전북지역본부장, 전북농협 박병철 노조위원장, 장경민 본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전주법원지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작년 11월 전주지방법원의 새로운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3월부터 전국적인 영업망과 공공금융 인력을 기반으로 공탁금 보관 역할은 물론 법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도내 정읍지원, 남원지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등 총 4곳의 공탁금 보관 ·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전주법원지점을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NH농협은행 '전주법원지점' 개점식에서 NH농협은행 권준학 은행장, 전주지방법원 오재성 법원장 등 내외빈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권준학 은행장은 "전주지방법원의 새로운 공탁금 보관은행으로서 고객들의 법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 전주법원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촌체험프로그램 지원 마을 100곳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대상마을 10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농촌관광 회복을 위해 소규모 · 개별화되는 관광 유행에 맞춰 올해 처음 진행되는 사업으로, 선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에는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 시범운영, 홍보 · 마케팅, 마을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위해 연간 총 18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농촌관광 전문가와 마을을 1:1로 연결하고 최대 8회 이상 전문 자문을 실시해 개별 관광객 대상 체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서면 · 현장 평가를 통한 신청마을의 사업 의지와 목표, 마을사업 계획 내용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대상 마을을 선정했으며, 전북은 총 13개소가 최종 선정돼 지원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농식품부 최정미 농촌산업과장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새로운 관광 유행에 맞는 소규모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경쟁력을 높이고, 침체된 농촌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농촌체험꾸러미를 지원해 간접적으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대희 기자

‘청렴윤리경영문화 확산’

국민연금-권익위, 상호 협약 체결
부패 리스크 예방 · 탐지 · 개선 체계 구축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청렴윤리경영 문화 정착 ·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추진됐으며,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 ▲부패 리스크 예방 · 탐지 · 개선 체계 구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선제적 제도 정비 ▲신고자 보호 체계 확립 및 부패 · 공익신고 처리 과정 협력 ▲청렴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 소통 ·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단은 권익위의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 도입을 통해 기존의 청렴윤리경영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부패리스크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율적인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도입되는 프로그램은 협약 부패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청렴경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시스템 및 활동이다.

김용진 이사장은 "책임감과 투철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솔선수범 할 것"이라며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2022년도 국가청렴도 20위권대 달성을 위해서는 경영부문 투명성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공기업 · 기업 등의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단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최대희기자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앞줄 오른쪽 첫 번째)이 지난 15일 경북 군위군 부계면 사과농장에서 '과수화상병 예측정보'를 활용한 개화기 약제 살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제때 해줘야”

김두호 농진청 차장, 사과농장 찾아 방제현장 점검

사과나무의 개화기를 맞아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 살포 채비가 한창인 가운데 올해는 농촌진흥청이 과수 환경 실시간 정보를 추가함에 따라 제때 방제가 이뤄져 예방 효과가 높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 김두호 차장은 지난 15일 경북 군위군 부계면에 있는 사과농장을 찾아 '과수화상병 예측정보'를 활용한 약제 살포 현장을 점검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예측정보(http://www.fireblight.org)'는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가장 근접해 있는 3개 지점의 '꽃 감염 위험도'를 4단계(낮음, 다소높음, 위험, 매우위험)로 구분해 일자별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날 김 차장은 경북과 군위군의 과수화상병 개화기 약제 살포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예측정보를 활용한 약제 살포 작업에 나선 농업인과 식물방제 관계관을 격려했다.

김 차장은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한 약제를 제때 주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라며 "약제 살포 후에도 과수원을 수시로 살펴 과수화상병 증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상 발현 시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농업기술센터에 신속히 신고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방문한 사과 농장은 농진청 지원 사업을 통해 '원격 병해충 방제 시스템'을 구축한 곳으로, 방제에 드는 노동력을 줄이고 농약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대희 기자

전북도, 올 수요맞춤형 드론산업 기업지원 공모

전라북도는 도내 드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수요맞춤형 드론산업 육성 사업으로 연구개발, 사업화, 마케팅 분야로 기업지원 공모를 시작한다.

2022 수요맞춤형 드론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도내 드론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 구축된 드론 전담 인프라를 통해 전북 맞춤형 드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캠틱종합기술원이 주관한다.

전북도는 2021년도 사업을 통해 도내 11개사(연구개발 지원 3개사, 마케팅 및 사업화 지원 8개사) 드론기업을 지원하였으며 매출 약 2억7,000만원과 6명 신규고용 창출 등 성과를 보인 바 있다.

연구개발 분야로는 변화하는 공공부분 수요에 대응해 시장변화를 분석, 기업 기술 상황을 진단하고 적합한 R&D 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 방향 및 방법, 기술 타당성을 분석하여 기술개발을 완료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마케팅 및 사업화 분야로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등 기술 및 제품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기업 수요에 적합한 마케팅 관련 기획도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5월 6일까지 공고가 진행되며, 참여 희망 기업은 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갖추어 캠틱종합기술원으로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 기업(스타트업, 창업기업 포함)으로 시장성과 경쟁력이 우수한 제품 및 기술을 보유한 기업 또는 드론에 적용 가능한 유사기술 보유기업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캠틱종합기술원 홈페이지(www.camt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업내용에 대한 사항은 캠틱종합기술원(드론사업부 063-219-0420)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 최창석 혁신성장정책과장은 "도내 드론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도내 드론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 ‘큰 호응’

코로나19 따른 취업취약계층 실업문제 · 생계안정 동시 지원

전북도와 전라북도일자리센터는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 · 연계해 도내 취업취약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5일 센터에 따르면 이 제도는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을 결합해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실업 문제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방식은 소득, 재산, 연령 등의 요건에 따라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두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를 제공한다. 구직촉진수당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재산 4억원 이하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월50만원X6개월)의 수당이 지원된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구직촉진수당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참여 대상이며,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95만4,000원(직업훈련 참여시)의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지원대상은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로 별도의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완전 취업자도 미취업 상태로 간주해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한편 이번 지원은 지난해 3월부터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 · 연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구직자 300명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도 구직자 100명을 지원해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도 관련 문의는 전라북도일자리센터(1577-0365), 제도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대희기자

“농민 권익보호 · 소득창출 다짐”

이기성 새농민 전북회장 취임

전북농협은 지난 15일 2층 대회의실에서 (사)한국새농민 전북도회 회원들과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성 제12대 한국새농민 전북도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난 15일 2층 대회의실에서 (사)한국새농민 전북도회 회원들과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한국새농민 전북도회장(회장 이기성)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기성 회장은 "한국새농민 전북도회는 농민의 권익보호 및 소득창출과 새농민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로운 한국농업을 이끌어가는 청년농업인과 귀농인 육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날 행사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한 답례품을 전북 농축산물 중심으로 공급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활동을 전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편 (사)한국새농민회는 농협에서 자립 · 과학 · 협동 정신을 실천하는 최우수 농업인에게 수여하는 새농민상을 수상한 선도농업인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1966년부터 수상자를 배출한 이래 도내 600여명에 이르는 부부 농업인이 활동하며 지역농업 발전과 선진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김윤상기자

농진청, 옥수수 전분 펫푸드 제조기술 개발

저항 전분 함량 높아 비만 예방에 효과적

국내 반려견 비만율은 약 40%로 추정되고 있으며, 비만 예방을 위한 기능성 펫푸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상표 인지도가 높은 수입산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가 높아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한 국내 펫푸드 산업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옥수수 전분을 이용해 만든 기능성 펫푸드가 반려견의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 연구는 쌀, 밀가루, 전분류 등 식품 원료를 대상으로 저항 전분(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는 탄수화물) 함량이 가장 높은 소재를 조사한 결과, 옥수수 전분의 저항 전분 함량이 6.02%로 가장 높았으며 가열, 냉각 같은 저항 전분 증진 기술을 적용하면 6.69%(11% 증가)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저항 전분 함량이 높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펫푸드를, 16주간 반려견에게 기초 에너지 요구량보다 높은 수준으로 급여했을 때 몸무게, 영양소 소화율, 비만 연관 미생물 부분에서 비만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몸무게는 일반 펫푸드를 먹인 그룹이 10% 증가한 반면, 옥수수 전분 펫푸드를 먹인 그룹은 2%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평균 몸무게가 7.2% 정도 적게 나갔다. 영양소 소화율을 평가한 결과, 옥수수전분 펫푸드가 일반 펫푸드보다 탄수화물 소화율은 8.3%P, 에너지 소화율은 2.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변 내 미생물 군집을 분석한 결과, 옥수수 전분 펫푸드를 먹인 그룹은 비만과 연관된 미생물로 알려진 블라우티아(Blautia)가 급여 전보다 92%(11.28%→0.89%) 감소했다. 반면 일반 펫푸드를 먹인 그룹은 30%(8.18%→5.7%)만 줄었다.

이를 통해 농진청은 옥수수 전분 가공 기술과 이를 활용한 펫푸드 제조 기술은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아울러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반려동물 집밥만들기'에 옥수수 전분 영양성분 정보를 추가했다./최대희 기자